

# 주요 학문분야 비교를 통한 국내 정보공개 연구동향 분석\*

## Analyzing Domestic Research Trend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Comparing Major Academic Disciplines

배나윤 (Na-yun Bae)\*\*

오효정 (Hyo-Jung Oh)\*\*\*

### 초 록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선행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본 정보공개의 미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판빈도와 세부 학문별 논문 게재 추이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주요 학문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의 논문명과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각 학문별 주요 키워드 관계와 특화된 연구주제를 시각화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은 주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 변화와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한 미래 연구 방향으로서는 법학 분야의 정책 연구에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변화 연구를 결합하고,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가능한 운영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Analyzing research trends is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discipline and is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value of prior research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subsequent research.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convergence research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rom various disciplin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ends in disclosure of information research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publication frequ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papers list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from 2002 to 2023 and the publication trend by discipline as a time series. In addition, we compared the keyword relationships and specialized research topics of each discipline by applying network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techniques to the names and keywords of papers in law, public administration,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aw focuses on legal regulations and policy improvement, public administration focuses on changing social needs and administrative operation methods, and LIS focuses on practical approaches to record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ased on this,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clude combining policy research in law with social change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ing realistic polici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 of LIS. Such convergent research will enable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system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enhancement of state transparency.

키워드: 정보공개, 연구동향분석, 계량분석, 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disclosure of information, research trends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word network analysis, topic modeling

\* 본 논문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과제번호: NRF-2021R111A3047435).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teacher0716@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공동연구원(ohj@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4년 5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2024년 6월 10일 ■ 게재확정일자: 2024년 6월 18일

■ 정보관리학회지, 41(2), 295-316,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2.295>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정부나 기업운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과 이해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미국,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 후, 1996년 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를 촉진하도록 설계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전차적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절차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주요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누적된 연구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학문의 발전 양상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오세훈, 2005). 특정 분야에서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을 조사하는 것은 선행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유정, 2024). 학문의 발전 동향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연구자 역시 사

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변화에 따라 그들이 수행한 연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서두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공개 법령과 운영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구동향 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정보공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공개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정민, 김유승(2013)이 유일하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는 한국학술지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에 정보공개 관련 학술 논문이 처음 등장한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약 20년 동안 출판된 모든 논문들을 수집함으로써 양적부족 문제를 보완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분야의 세부 연구 구조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주요 학문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세부 토픽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이라는 두 가지 주요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분야별 비교를 통해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공개 미래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해 살펴볼 선행연구로는 먼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관련 연

구동향을 분석한 최정민과 김유승(2013)이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연구논문 97편을 분석하여 학문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의 기준에 따라 9가지 주요 주제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수집된 논문을 1999년 이전, 2000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주로 등장한 연구 주제의 흐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공개와 관련된 연구는 확산되고 있는 반면, 연구 목적이나 대상이 편향되어 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는 정보공개 관련 동향 연구로는 첫 시도이자 유일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단순히 시기별 등장한 논문 출판 수만을 기준으로 연구의 동향을 확인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3년 말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출판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세부 학문분야를 탐구하고, 대표적인 텍스트 분석 방법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분야별 비교를 통해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였다.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동향 분석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혜인, 남영준(2016)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한국기록학연구』 학술지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68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해 기록관리 분야의 학제성과 주제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지나, 정힘찬, 김용(2017)은 2008년부터 2017년 중반 사이에 발표된 312건의 재난정보 논문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동향을 조사하였고, 논문명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성환, 오효정(2018)은 국내·외 기록관리학 동

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 연구주제의 동향과 차이를 파악하고, 시계열 기반의 내용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국제적 연구동향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박수연, 전주성(2024)은 KCI 게재 논문 126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연구대상, 측정도구 등의 빈도분석과 진로적응성 관련 변인 및 주제어 분석을 통해 국내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동향 분석 연구는 전반적인 대표 키워드 분석을 기반으로 시계열에 따른 추이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동향의 표면적인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세부 학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깊은 의미적 연결성을 파악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병행 적용함으로써 정보공개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주요 학문별 연구들 간의 관계와 주제의 진화를 비교하였다. 특히, 2013년에 수행된 정보공개 관련 동향연구(최정민, 김유승, 2013)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을 감안, 최근 21년간에 KCI에 출판된 모든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포함하여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과 변화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시작은 1992년 1월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으로, 1994년 7월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시행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에게도 정보 청구 권리를 부여한다. 1998년 1월 본격 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20년, 6차례 개정(전부 또는 일부, 타법 개정 제외)을 거쳐 현행 체제로 시행되는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첫 개정안에는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국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하며 정보공개심의회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비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에는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요건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13년에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요청이 없어도 사전에 공개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켰다. 2016년에는 공문서 결재 과정이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 서명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허용되어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2020년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조사와 개선 권고를 추가하여 그 기능을 보강하였다. 이렇듯 다수의 개정안은 사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학술연구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예상된다.

## 2.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논문 제목, 키워드, 초록 등 주요 단어를 추출하여 단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키워드 간 동시출현빈도를 바탕으로 단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노드(node), 키워드 간의 관계는 링크(link)가 된다. 이렇게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발된 분석기법을 적용해 해석한다. 이러한 방법은 각 개념의 체계와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단순히 키워드의 종류나 빈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키워드 간

의 관계와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이은택, 차정민, 2024).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중심성이다. 중심성이란 중앙에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등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차용한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노드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노드가 단순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개념과 변수들과 연결되어 연구되었음을 의미한다.

### 2.3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주어진 문서 집합에서 잠재적인 주제를 발견하는 기법으로, 문서 내 단어들의 출현 패턴을 분석해서 각 문서가 어떤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 주제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추정하여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Blei, Ng, & Jordan, 2003). 이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제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 만족 요인 및 요구사항, 트렌드 등을 파악하는 강력한 분석 도구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이시환, 조아람, 이훈영, 2017). 대표적으로 토픽 모델링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과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이 있다. LDA는 문서 내에 특정한 토픽이 존재할 확률과 단어가 특정 토픽에 속할 확률의 결합확률을 추정하여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는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하는 비지도 학습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논문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연구동향 분석에 적용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LDA 모델이 텍스트 주제 추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되었다(고유정, 2024).

## 3. 계량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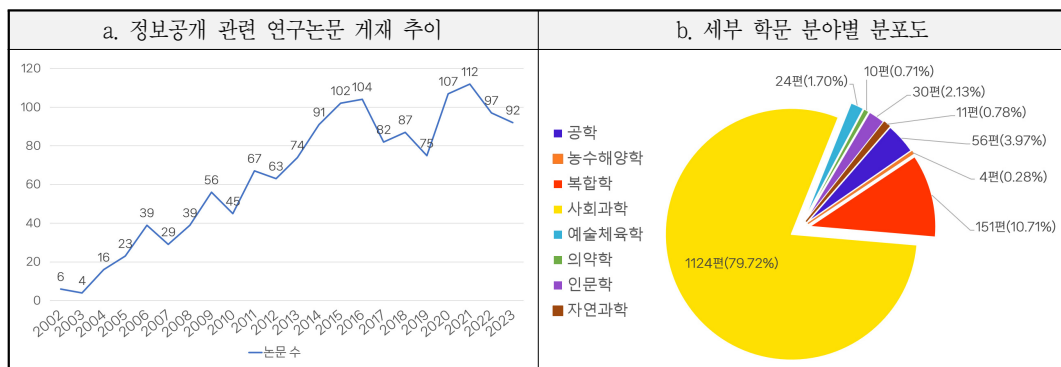
본 연구의 기초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 중인 KCI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검색 도구를 활용해 “정보공개”를 검색어(query)로 수집하였다.<sup>1)</sup> 수집 결과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02년으로, 한 해 출판된 논문의 서지 정보가 모두 집계된 2023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1,523편의 논문 중 제목이나 저자 키워드 필드가 비어있거나 한국어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지만 분석에 중요하지 않은 ‘중심’, ‘연구’, ‘대한’, ‘통한’ 등과 같은 단어들을 불용어 처리하였으며, 동의어와 유사어의 표준화 작업으로 ‘국내’, ‘우리나라’는 ‘한국’으로, ‘대학’, ‘대학교’, ‘교육대학’은 ‘학교’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등의 후처리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1,410건의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1)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검색시점: 2024.03.27.

〈그림 1〉은 본 연구 대상 1,410편 논문의 연도별 게재 현황이다. 〈그림 1. a〉에서와 같이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는 2002년 6편을 시작으로 논문 수가 증가하다 2007년, 2010년, 2017년, 201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 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0년 이후로 연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정부의 데이터 공개와 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2)</sup>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데이터 공개는 공중보건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공공 건강 데이터와 그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b〉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학술연구분야분류표<sup>3)</sup>에 따른 학문 분야별 분포를

도식화한 것으로, 사회과학분야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 복합학 분야와 공학 분야가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사회과학 분야가 1,124편(79.72%), 복합학 151편(10.71%)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공학 56편(3.97%), 인문학 30편(2.13%), 예술체육학 24편(1.70%), 자연과학 11편(0.78%), 의약학 10편(0.71%), 농수해양학 4편(0.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으로, 보다 명확한 학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분류까지 세분화한 분포도를 파악하였다. 〈표 1〉은 정보공개 관련 학문분야를 중분류까지 세분화하여 상위 10위까지 나타낸 것으로, 중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위 3위 분야는 사회과학의 법학이 536편(38.01%), 행정학 150편(10.64%), 복합학의 문헌정보학 99편(7.0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분야, 총 785건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주요 학문 연구 분야의 추이와 연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 정보공개 관련 논문 현황

2) <https://blog.naver.com/mohw2016/222309476020>

3) <https://www.kci.go.kr/kciportal/ss-mng/bbs/bbsRRView.kci>

〈표 1〉 주요 학문별 논문 비율(상위 10위 중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논문 수 (개) | 비율(%) |
|------|--------|----------|-------|
| 사회과학 | 법학     | 536      | 38.01 |
|      | 행정학    | 150      | 10.64 |
| 복합학  | 문헌정보학  | 99       | 7.02  |
| 사회과학 | 경영학    | 61       | 4.33  |
|      | 사회과학일반 | 55       | 3.90  |
|      | 정책학    | 51       | 3.62  |
|      | 교육학    | 49       | 3.48  |
|      | 경제학    | 43       | 3.05  |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38       | 2.70  |
|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31       | 2.20  |

## 4. 주요 학문 분야별 비교

본 장에서는 앞 절에서 선정된 정보공개 관련 주요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분야에 게재된 논문들의 제목과 저자 키워드에서 추출한 단어를 바탕으로, 워드 네트워크 분석<sup>4)</sup>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sup>5)</sup>을 활용하여 각 분야의 연구 트렌드와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떠한 의제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하고, 각 분야에서의 특화된 주제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4.1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분야에서 중요한 키워드의 연결관계를 도출하였으며, 각 분야의 네트워크 구조는 연결 중심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표 2〉는 각 분야별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정리한 표로, 먼저 각 분야별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연계 분석은 4.1.4장에서 총괄하기로 한다.

각 분야별 워드 네트워크(〈그림 2〉부터 〈그림 4〉)에서 제시한 주요 키워드 노드 수는 동시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빈도수가 1인 데이터는 분석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빈도수 2 이상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노드 개수는 법학 137개, 행정학 89개, 문헌정보학 71개이다.

#### 4.1.1 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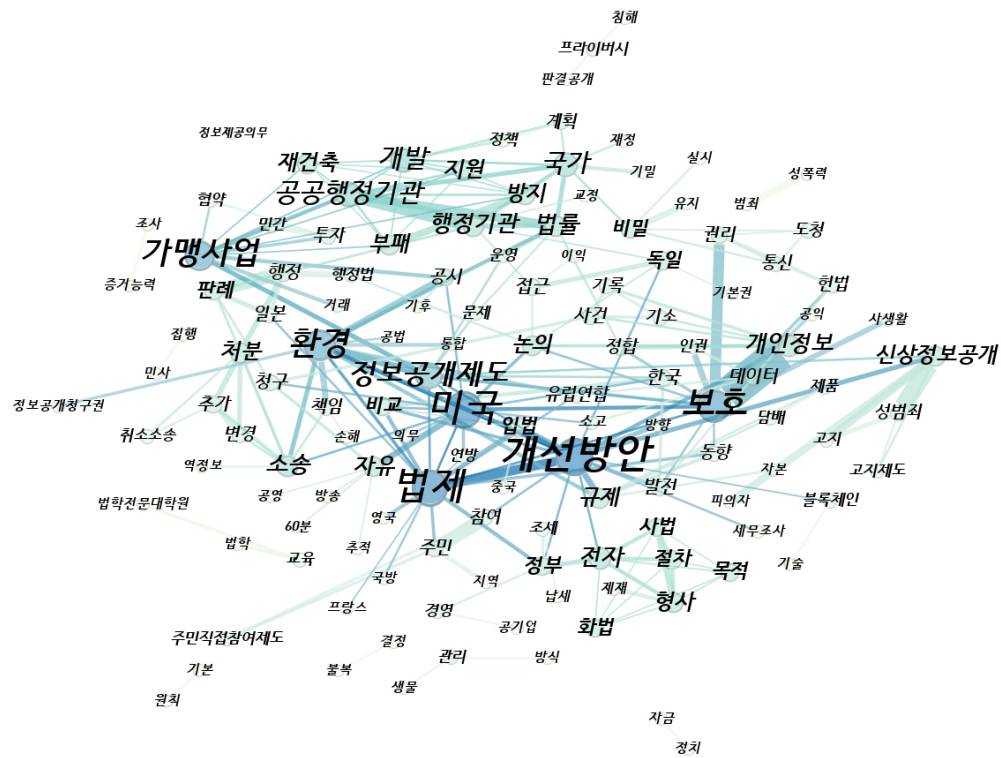
〈그림 2〉는 법학 분야의 주요 키워드를 연결 중심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4) Gephi(0.10), 오픈소스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패키지

5) gensim, pyLDAvis 라이브러리

〈표 2〉 주요 학문별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    | 법학     |       | 행정학      |       | 문헌정보학   |       |
|----|--------|-------|----------|-------|---------|-------|
|    | 키워드    | 중심성   | 키워드      | 중심성   | 키워드     | 중심성   |
| 1  | 개선방안   | 0.178 | 경찰       | 0.277 | 기록      | 0.428 |
| 2  | 법제     | 0.133 | 개선방안     | 0.222 | 정보공개청구  | 0.328 |
| 3  | 미국     | 0.108 | 범죄       | 0.222 | 공공기록물법  | 0.314 |
| 4  | 정보공개제도 | 0.101 | 성범죄      | 0.155 | 이용자     | 0.199 |
| 5  | 환경     | 0.094 | 성폭력      | 0.144 | 서비스     | 0.199 |
| 6  | 보호     | 0.094 | 대학생      | 0.144 | 대통령기록관  | 0.185 |
| 7  | 발전     | 0.077 | 신상정보등록제도 | 0.111 | 정부      | 0.171 |
| 8  | 규제     | 0.077 | 사법       | 0.1   | 정보공개제도  | 0.171 |
| 9  | 전자     | 0.077 | 형사       | 0.1   | 원문      | 0.157 |
| 10 | 개인정보   | 0.070 | 사례       | 0.1   | 정보공개심의회 | 0.142 |



〈그림 2〉 법학 분야 워드 네트워크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노드 크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개선방안’, ‘법제’, ‘미국’, ‘정보공개제도’, ‘환경’, ‘보호’ 등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정보공개제도, 환경, 신상정보공개 등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요 연구주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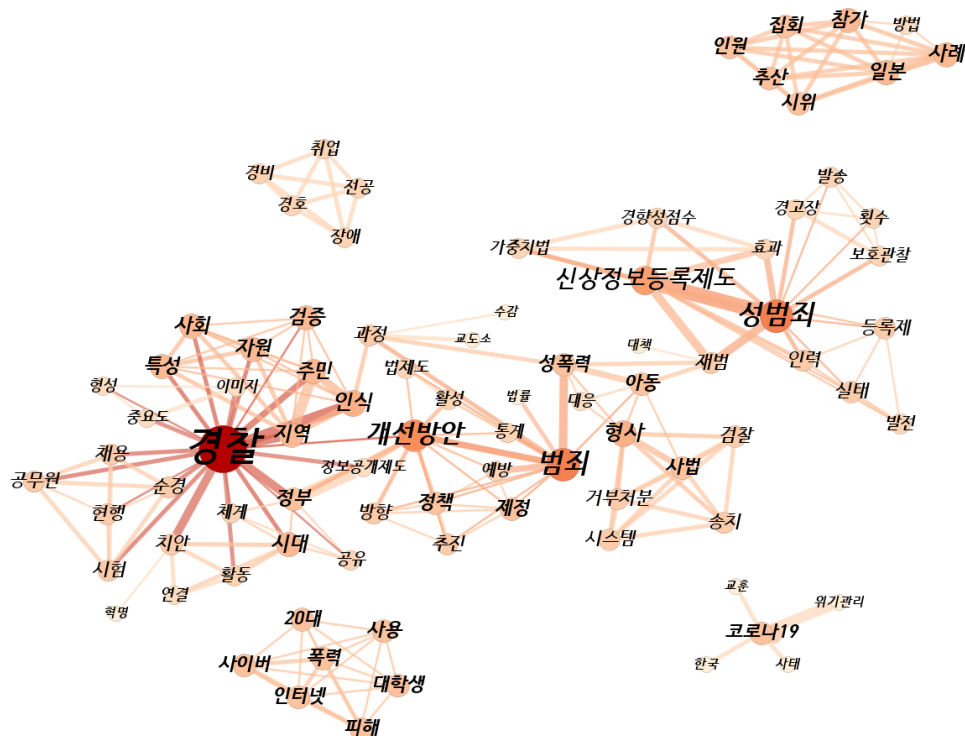
다. 주요 논문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태명, 2016)’, ‘ESG 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안수현, 2021)’,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 보호(최인호, 2008)’ 등과 같이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논문을 선정한 기준은 해당 학문 분야 내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3위까지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 중 인용 횟수가 가장 높은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키워드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와 '보호'의 연결강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에

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개인정보일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제도는 각각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되어 작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연구 키워드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가 균형 잡힌 체계나 대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함의한다.

### 4.1.2 행정학

〈그림 3〉은 행정학 분야의 주요 키워드를 연결 중심성을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행정학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노드 크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경찰’, ‘개선방안’, ‘법



〈그림 3〉 행정학 분야 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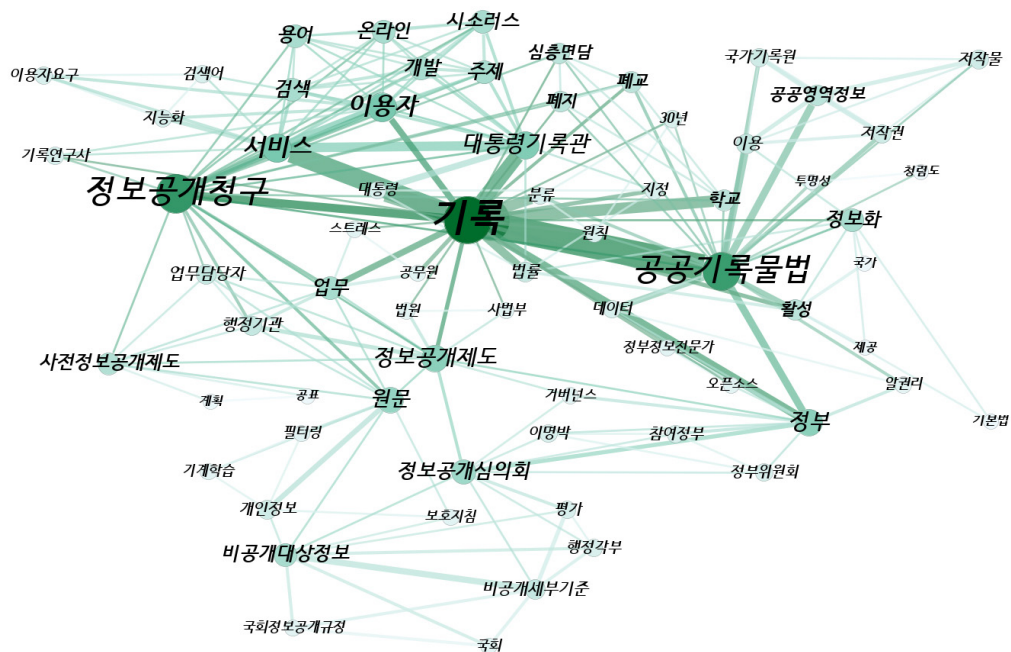
죄’, ‘성범죄’, ‘대학생’, ‘신상정보등록제도’ 등을 핵심 키워드로 활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부 3.0시대의 경찰정보공유 논의 - 정보공개 및 공유 체계를 중심으로(박한호, 2016)’, ‘정부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 개선방안(정혜진, 길부중, 2010)’,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장석현, 2009)’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키워드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성범죄’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연결강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까지 출판된 논문들이 성범죄와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초기 논의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기 논의는 2017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의

연구는 사회적 변화와 법적개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4.1.3 문헌정보학

〈그림 4〉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문헌정보학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노드 크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기록’, ‘정보공개청구’, ‘공공기록물법’, ‘이용자’, ‘서비스’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조영삼, 2009)’,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적 분석(최정민, 2015)’, ‘폐교(초·중·고) 기록물 이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전다습, 이



〈그림 4〉 문헌정보학 분야 워드 네트워크

지수, 2023)’ 등으로 이를 통해 학교 및 중앙행정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및 기록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기록’과 ‘공공기록물법’의 연결강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학교, 정부 기록이나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민간기록 관리기관의 기록물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과 시행령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암시한다.

#### 4.1.4 학문 분야간 키워드 연관 분석

상기한 세부 학문별 특성과 <표 2>의 분야별 주요 연구 키워드 간의 연관 관계를 비교해보면, 먼저 법학과 행정학에서 ‘개선방안’의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외 법학분야에서 상위에 등장한 키워드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체계나 대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특화된 주제라 볼 수 있다. 행정학분야는 2017년 성폭력 처벌법 개정 이후, 신상정보등록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요구가 증가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법학은 법령이나 제도를 주관하고, 행정학은 이러한 규정을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두 학문 모두 현행 법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법학 분야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적 개선방안, 개인정보 관련 정보공개법의 법적 규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행정학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의 효율성,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등 실제 행정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법

과 행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반면, 문헌정보학 내의 기록관리학은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부분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록연구사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로 인해 ‘기록’이나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며,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공개,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개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둔다.

## 4.2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LDA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LDA 토픽모델링은 토픽의 수가 모델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학문별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학문별 응집도(coherence)와 혼잡도(perplexity)를 측정하여 적절한 토픽 수를 설정하였다. 응집도는 주어진 토픽모델링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서 높은 응집도 값을 가지는 토픽일수록 의미 해석이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혼잡도란 모델이 얼마나 불확실한 예측을 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낮은 혼잡도 값을 가지는 모델일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픽 수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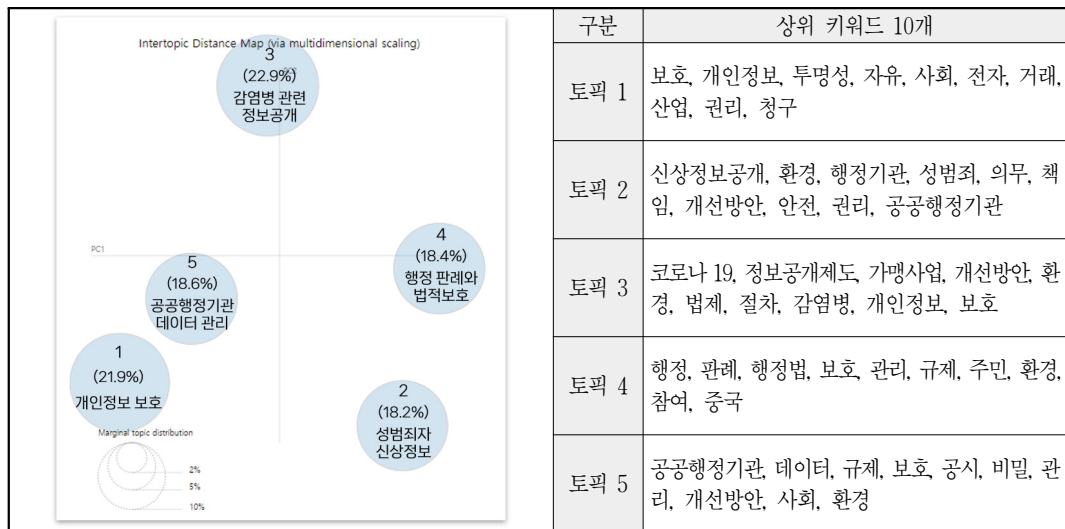
하기 위해 응집도 값이 높으면서 혼잡도의 값이 낮은 결과 값을 선택하였다. 각 학문별 수집대상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응집도와 혼잡도를 계산한 결과, 법학 분야 토픽의 수는 5개, 행정학 분야는 6개, 문헌정보학 토픽의 수는 4개로 선정되었다. 토픽 시각화 결과(〈그림 5〉부터 〈그림 7〉)에서의 토픽 번호와 배치 순서는 모델링 수행 시 먼저 군집이 구성된 순서를 반영한 것으로, 토픽의 위치 역시 처음 생성된 군집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배치되었다.

#### 4.2.1 법학

〈그림 5〉는 법학 분야의 LDA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5개의 토픽의 비율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행정 판례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기간 동안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픽 3]은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인권 문제로 연결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출된 토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개인정보가 종종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한정 수집되어 이용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법학 분야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와 토픽모델링 결과를 연계해서 살펴보면, 감염병 유행 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공공 건강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건강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개 사이에 적절한 법적 균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그림 5〉 법학 분야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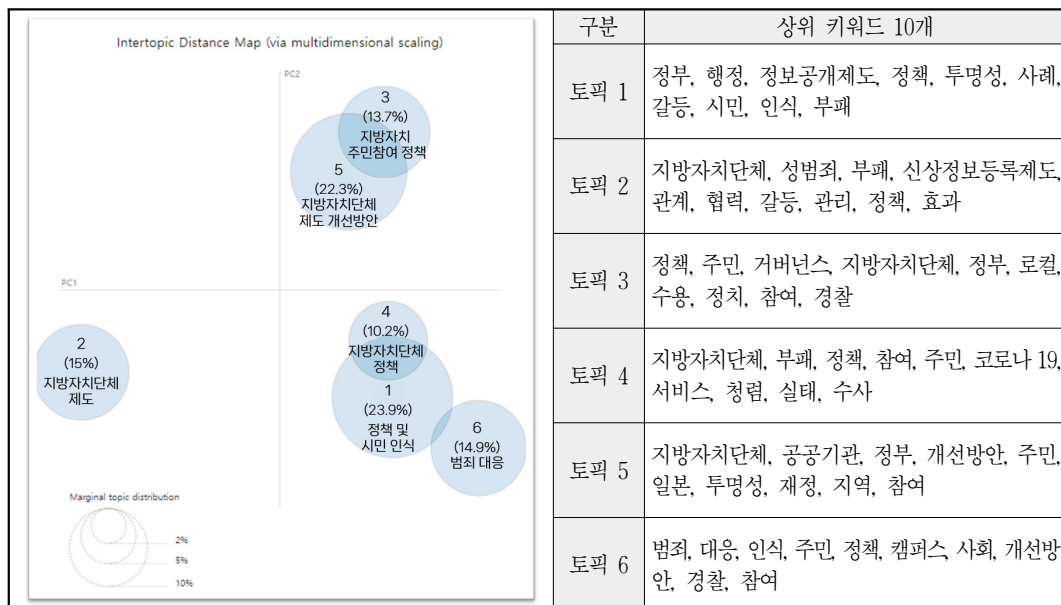
보장하는 효과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례로 김현경(2014)은 개인의 모든 사적 사항이 국가에 노출되어 상시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 방안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봉문(2021)은 감염병예방법을 기반으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긴 하되, 사전에 정보 주체가 정보 수집과 공개의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학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법제화를 통해 법적 규제와 원칙을 설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 예방법, 환경법, 행정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법학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연구주제와 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이는 토픽별 주요 논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실정법을 근거로 하는 연구들이 많으며 이는 법적 준수의 필요성과 법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연구는 법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2.2 행정학

〈그림 6〉은 행정학 분야의 LDA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전체 6개의 토픽 중 ‘정책 및 시민인식’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토픽 1]이 23.9%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토픽 관련 주제들을 살



〈그림 6〉 행정학 분야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조직적 특성 및 효율성, 제도 개선이 주요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제도와 업무, 인식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업무 추진비, 회계, 예산 등 행정처리 시 필수적인 절차와 관련한 여러 측면의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정보공개는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백형배와 김필두(2011)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의 부재가 주민들이 해당 제도의 이해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상현(2014)의 연구 역시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토픽 1]과 [토픽 4] 그리고 [토픽 3], [토픽 5]가 일부 겹쳐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정책, 주민 참여, 투명성, 부패 문제 등 행정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각 주제들이 초기에는 단일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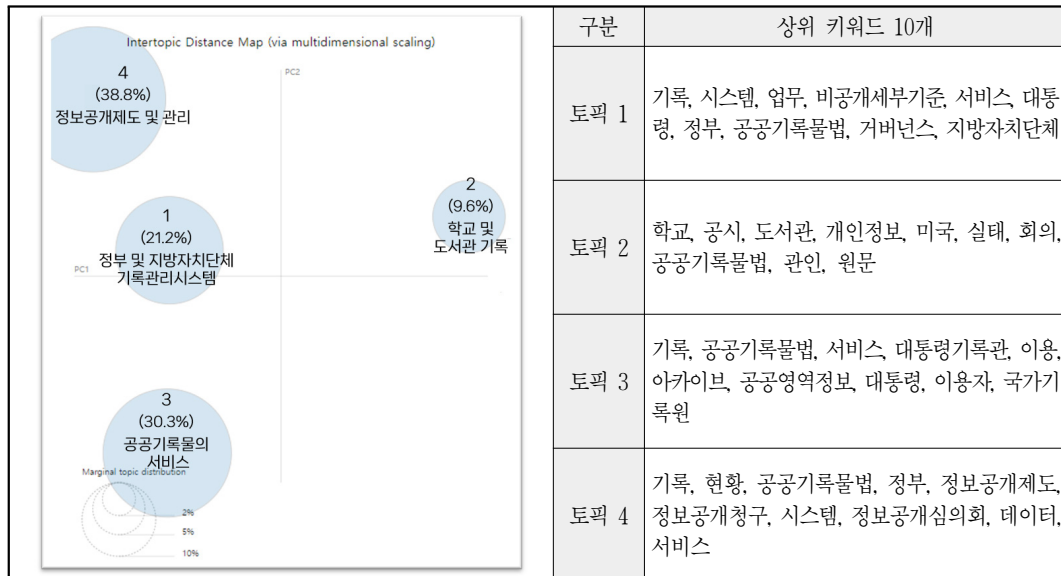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정분권의 확대에 증가하는 지방재정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민들이 정책결

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촉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 4.2.3 문헌정보학

〈그림 7〉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LDA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4개의 토픽이 그룹핑되었으며, 주로 정보공개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기록 이용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4개의 토픽 모두에서 ‘기록’이 상위 순위에 나타났는데, 이는 문헌정보학 내 세부 분야로 ‘기록관리/보존’을 연구하는 기록관리학이 포함되어 있는 학문체계가 투영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실제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현재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록연구사나 혹은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일반 민원과 함께 담당하는 겸직을 취하고 있다(이보람, 이영학, 2013). 특히, 1998년 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 의무적으로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이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은 불가분 관계라는 인식하에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윤은하, 김수정, 2015)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토픽 4] ‘정보공개제도 및 관리’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의 운영 현황이나 각 기관의 행정정보공포, 비밀기록, 기록관리 등의 현



〈그림 7〉 문헌정보학 분야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황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운영을 위한 지침과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개선이 필요(전슬비, 강순애, 2016)하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정보공개 제도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와 인력의 확보, 운영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4.2.4 학문 분야간 주제 연관 분석

학문 내 주요 연구주제들을 비교해보면, 법학 분야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가 두드러졌

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감염병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공공 건강 사이의 법적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행정학 분야는 ‘정책 및 시민 인식’이 주요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조직적 특성 및 효율성,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고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가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개선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보공개제도 및 관리’가 주요 토픽으로 나타나며,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정보공개 운영 현황의 효율성 증진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개선과 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이 주요 연구주제임을 시사한다.

### 4.3 융합 연구를 위한 시사점

상기한 바와 같이 각 학문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기 다르다. 법학은 주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변화와 행정단체, 특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법학 분야 연구들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규제와 판례 분석에 집중하고, 행정학은 정보공개가 정부 신뢰도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문헌정보학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청구의 실질적 운영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학문적 접근은 각각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융합연구를 통해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실제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없이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법학 분야의 규제 및 정책 연구가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요구 및 제도 변화 연구와 결합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 및 실용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와의 균형을 맞추는 규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적 규제와 정책적 실행의 조화를 이루어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 신뢰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연구사가 정보공개 청구업무 및 업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실무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학에서 주로 연구된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과 정보공개투명성 강화 방안이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접근과 결합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실무지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학과 문헌정보학의 융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기록관리의 법적 규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의 실질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도입하여 정보공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실무와 연계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공개법의 실질적 적용과 행정 체제에서의 운용 방안을 함께 바라본다면 보다 정교한 개정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학문 간의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여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상호보완적인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5. 결 론

본 연구는 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해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연구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분석 결과, 국내 정보공개 연구는 2002년에 시작된 이래로 변동성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 연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데이터 공개와 관리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과학 중 법학과 행정학 그리고 복합학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연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학문 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법학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의 균형 잡힌 체계 및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성범죄와 신상정보등록제도 그리고 경찰의 정보공개가 국민과의 소통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에서는 기록 및 공공기록물법과 관련된 실무 중심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며, 학교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기록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법학 분야에서는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공개 사이의 적절한 법적 균형을 찾는 것이 강조되었다. 행정학에서는 정보공개 투명성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들은 정보공개

제도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상기한 세부 분야별 연구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미래 융합연구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이 서로의 특성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학은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변화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결합하면 구체적이고 실용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학과 행정학의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접근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지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빈도분석과 개략적이고 표면적인 연구 토픽 분석에 집중한 기존의 연구동향 논문과 달리, 세부 학문 분야별 정보공개 관련 논문들을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학문의 특성을 융합한 미래 연구 방향성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로만 한정된 점을 보완, 정보공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선별, 해외 연구들을 포함하여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주요 연구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정보공개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포괄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 고유정 (2024). 토픽모델링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9(2), 197-209. <https://doi.org/10.9708/jksoci.2024.29.02.19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9호.
- 김성환, 오효정 (2018).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 기반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지리적 시간적 비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65-189. <http://doi.org/10.4275/KSLIS.2018.52.2.165>
- 김태명 (2016).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8(1), 145-180. <https://doi.org/10.36999/kjc.2016.28.1.145>
- 김현경 (2014).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성균관법학, 26(4), 267-297. <https://doi.org/10.17008/skklr.2014.26.4.012>
- 박수연, 전주성 (2024). 국내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4(1), 81-106. <https://doi.org/10.34226/gcl.2024.14.1.81>
- 박한호 (2016). 정부 3.0시대의 경찰정보공유 논의: 정보공개 및 공유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1), 77-98.
- 백형배, 김필두 (2011).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1), 117-136. <https://doi.org/10.22783/krila.2011.25.1.117>
- 손혜인, 남영준 (2016).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http://doi.org/10.3743/KOSIM.2016.33.1.085>
- 안수현 (2021).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경제법연구, 20(2), 63-115. <https://doi.org/10.22829/kela.2021.20.2.63>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https://doi.org/10.3743/KOSIM.2005.22.3.379>
- 윤은하, 김수정 (2015).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업무 및 업무 환경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7-28.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1.007>
- 이보람, 이영학 (2013).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5, 41-91.
- 이봉문 (2021).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감염병예방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법학연구, 24(1), 101-136. <https://doi.org/10.22789/IHLR.2021.03.24.1.4>
- 이시환, 조아람, 이훈영 (2017). 온라인 병원 리뷰자료의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을 활용한

- 의료서비스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18(5), 23-44.  
<https://doi.org/10.15706/jksms.2017.18.5.002>
- 이은택, 차정민 (2024). 사이버대학 학습경험 요소 도출을 위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4(3), 611-627.
- 장석현 (2009).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2), 231-260.
- 전다솜, 이지수 (2023). 폐교(초·중·고) 기록물 이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4), 113-135.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113>
- 전슬비, 강순애 (2016).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61-88. <http://doi.org/10.14404/JKSARM.2016.16.1.061>
- 정지나, 정힘찬, 김용 (2017).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정보와 관련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67-93. <http://doi.org/10.14699/kbiblia.2017.28.3.067>
- 정혜진, 길부중 (2010). 정부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15(4), 121-145.
- 조영삼 (2009).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기록학연구, 22, 77-114.
- 주상현 (2014).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 학보, 28(2), 425-454. <https://doi.org/10.18398/kjlgas.2014.28.2.425>
- 최인호 (2008).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공법연구, 36(4), 541-573.
- 최정민 (2015).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기록학연구, 45, 155-188.
-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http://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hn, Soo-Hyun (2021). Review of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related legal proposals and suggestions for reform: Based on the bill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20(2), 63-115.  
<https://doi.org/10.22829/kela.2021.20.2.63>
- Baek, Hyung-Bae & Kim, Pil-Doo (2011). An empirical stud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Chang Won City, Kyung Nam Province, S. Korea.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5(1), 117-136. <https://doi.org/10.22783/krila.2011.25.1.117>
- Chang, Suk Heon (2009).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1(2), 231-260.
- Cheon, Dasom & Lee, Jisue (2023). Investing the transfer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records from defunc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fter the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4), 113-135.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113>
- Choi, Inho (2008). Privacy implications for the disclosure policy under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Public Law*, 36(4), 541-573.
- Choi, Jeong Min & Kim, You-seung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73-197. <http://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 Choi, Jeong Min (2015). Responsiveness of request to information disclosur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5, 155-188.
- Jeon, Seul-Bi & Kang, Soon-Ae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61-88. <http://doi.org/10.14404/JKSARM.2016.16.1.061>
- Jeong, Ji-Na, Jeong, Him-Chan, & Kim, Yong (2017). Analysis of trends o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based on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67-93. <http://doi.org/10.14699/kbiblia.2017.28.3.067>
- Ju, Sang-Hyeon (2014). The status and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 3.0: Focusing on the effort of Jeonbuk Province Government3.0.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8(2), 425-454. <https://doi.org/10.18398/kjlgas.2014.28.2.425>
- Jung, Hye-Jin & Gill, Bojong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increasing trust in government.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15(4), 121-145.
- Kim, Hyun-Kyung (2014). Study on the legal interests of personal data system and legal issues. *SungKyunKwan Law Review*, 26(4), 267-297. <https://doi.org/10.17008/skklr.2014.26.4.012>
- Kim, Sung-Hwan & Oh, Hyo-Jung (2018).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trends analysi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based on onlin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65-189. <http://doi.org/10.4275/KSLIS.2018.52.2.165>
- Kim, Taemyeong (2016). The problem and its improvement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28(1), 145-180.

- <https://doi.org/10.36999/kjc.2016.28.1.145>
- Ko, You-Jung (2024). An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research trends based on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9(2), 197-209. <https://doi.org/10.9708/jksci.2024.29.02.197>
- Lee, Bongmun (202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ra of Corona 19. *Institute of Law Studies*, 24(1), 101-136. <https://doi.org/10.22789/IHLR.2021.03.24.1.4>
- Lee, Bo-Ram & Lee, Young-Hak (2013). A study on institutional reliability of open record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41-91.
- Lee, Eun-Taek & Cha, Jeongmin (2024). Analysis of cyber university learners' experiences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4(6), 611-627
- Lee, Si Hwan, Jo, Aram, & Lee, Hoon Young (2017). The medical service customer's satisfaction factors extracted from online hospital review data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method.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8(5), 23-44. <https://doi.org/10.15706/jksms.2017.18.5.002>
-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Law No. 19409.
- Oh, Se-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https://doi.org/10.3743/KOSIM.2005.22.3.379>
- Park, Han Ho (2016). Police information sharing in Government 3.0 era: With information disclosure and sharing system as a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5(1), 77-98.
- Park, Su-Yeon & Jun, Ju-Sung (2024).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areer adaptability in South Korea.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4(1), 81-106. <https://doi.org/10.34226/gcl.2024.14.1.81>
- Sohn, Hye In & Nam, Young Joon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ing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85-110. <http://doi.org/10.3743/KOSIM.2016.33.1.085>
- Youn, Eunha & Kim, Soojung (2015). Understand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FOI) work process of records manag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1), 7-28.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1.007>

Zoh, Yongsam (2009).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2, 77-114.